4월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과학영농

세포지구의 래일을 과학기술로 담보 (2015.4.6.)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이 2014년과 2015년 동안 제기되었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였음.
 - 풀판 조성 및 관리, 풀판토양의 개량과 병충해 방지, 먹이작물 재배, 집짐승 개량과 사양 관리, 수의방역, 바람막이숲 조성과 용배수 체계 확립, 경영관리의 정보화, 축산물 가공, 재생에너지의 이용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음.
- 기술자들은 분야별, 공정별, 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지도서들과 대책 방안을 작성하고 생육 예보를 주기적으로 편집하여 발행하는 사업도 진행했음.
 - 또한 기술자들은 토양 개량과 풀판 조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였음. 특이한 기상기후 조건과 지질 구조를 가진 세포지구의 토양을 분석하고 산성 토양 개량 방법을 찾았음. 수백 톤의 먹이풀 종자를 검사하고 싹 틔우기 시험을 하여 풀씨 파종량을 결정하였음.
 - 10여개 개간 단위의 현장에서는 시험 포전을 만들고 정밀 시험을 진행했음. 오리새, 자주 꽃자리풀, 토끼풀과 같이 세포지구에 적합한 먹이풀을 선정하였음.
 - 씨 뿌리기 시기와 씨 뿌리기 방법, 풀판 비배관리와 풀판 이용 방법을 확정하여 풀판 조성을 위한 과학 기술적 담보를 마련하였음.
 - 기술자들은 비탈진 땅, 습지 등 여러 토양 조건에 따르는 풀판 조성 방법과 잡초 제거 방법, 먹이풀 모판 만들기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음, 기술자들은 토양 개량, 풀판



조성 사업과 함께 종합적인 토양 관리 기계, 트랙터용 풀씨 파종기, 수동식 풀씨 파종기, 롤러다짐기 등 풀판용 농기계를 제작·도입하여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였음.

- 기술자들은 재래종 집짐승을 우량종으로 개량하기 위한 번식 체계의 확립, 발효 먹이 생산용 복합 미생물의 생산도입, 집짐승 전염병을 미리 막는 데 필요한 여러 예방약의 연구 개발에도 힘썼음.
- 기술자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바람막이숲 조성 과 용배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음.

정보당 소출을 높인 강냉이종자피복제 - 대동군 고산협동농장에서 (로동신문 2015.4.27.)

- 대동군 고산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은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 증산에 힘썼음.
 - 피복제를 씌운 강냉이 종자를 심어 영양단지모를 키우지 않으며 알곡 생산을 늘렸음.
 - 이를 통해 일정한 재료를 피복한 강냉이 종자를 심는 방법을 통해 싹트기률, 병해충 구제 효과, 뿌리 활성을 높이고 영양단지찍기로부터 모 기르기까지의 공정 없이 많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도 수확고를 10~15%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진거름을 말려 티오균 비료, 후민산염에 섞어 이용하는 방법도 고안했음.
- 농기계로 짧은 기간에 종자를 피복하여 영양단지찍기, 씨 넣기, 모 기르기 등의 영농 공 정을 대체함으로써 많은 노동력과 종자, 박막을 비롯한 영농 자재를 절약할 수 있게 되 었음.
 - 농장의 강냉이 밭에 종자피복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부식토를 절약하였음. 피복한 강냉이 종자를 이용하여 강냉이 영양단지모에 물을 주면서 일한 결과 심을 때보다 5~7배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었음.
 - 2014년 이 기술을 도입한 40여 정보의 강냉이 밭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에도 피해를 받지 않으며 정보당 소출을 2배 이상 높였음.

관심을 *끄*는 다수확품종고구마생산기술 - 농업과학원 밭작물연구소에서 (로동신문 2015.4.28.)

○ 농업과학원 밭작물연구소의 백원명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확고가 높은 고구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 결과 북한의 기후 풍토 조건에서 열대 지방에서와 같이 높 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새 품종의 고구마를 개발하였음. 생육 기일을 훨씬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재배 방법과 기술도 고안했음.

- 개발된 품종은 일반 고구마에 비해 잎 수가 2배 많고 빛 합성 능력을 높여 다수확이 가능하다고 나타났음.
 - 일반 고구마보다 줄기가 짧으며, 심은 후에 뒤져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당 종자 소요량도 일반 고구마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종 자 한 알에서 100대 이상의 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나타났음. 재배 방법을 새로 고안하여 생육 기일을 늘렸음.
- 이 방법을 사용한 의주군의 농장의 고구마 수확량은 일반 고구마에 비해 정보당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림 복구 작업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 동림군에서 (로동신문 2015.4.1.)

- 동림군 산림경영소는 나무모 옮겨 심는 방법과 자연갱신에 의한 산림조성방법, 혼성림조 성방법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하였음.
- 산림 경영소는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 동림군 양묘장에서 2015년에 182만 9,000여 그루의 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나무모를 생산하고 약 600정보 면적에 나무모 심기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음.
- 식수절을 맞이해 군급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꾼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이 동림 군 산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동림군에서는 향후 림농복합경영대상지 420정보에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목표를 세웠음. 2015년 림농복합대상지 35정보에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짰음.

그루마다 거름을 충분히 - 강서구역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 (로동신문 2015.4.6.)

- 일꾼은 2015년 나무심기를 위해 거름깔기에 집중했음.
- 보여주기 사업을 우선 실시하였음.
 - 일꾼들은 구덩이에 정확한 거름량을 넣고 나무를 심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음.
- 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였음.
 - 산에 떨어진 가랑잎이나 잔가지로 부식토를 생산해 나무심기를 하였음. 이런 부식토는 품



질이 좋아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 수 있었음. 진거름과 석탄재로 만든 거름에 일정한 양의 부식토를 섞어 나무심기를 시도하였음.

보름후에 꼭 해야 할 일 - 순천시에서 (로동신문 2015.4.6.)

- 봄철나무심기가 끝난 순청시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밟아주기를 진행하고 있음.
 - 나무를 심은 다음 보름 지나서 자기가 심은 나무들에 대한 밟아주기를 하였음. 그 결과 나무의 사름률이 높아졌음.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순천시의 모든 단위에서도 심 은 나무 밟아주기를 장려하였음.

나무심기계획 3년안에 끝낼 목표 - 은률군산림복구전투지휘부 일꾼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4.8.)

- 은률군 산림복구작업 지휘부 일꾼은 3년 만에 나무심기계획을 끝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산림 면적을 4개 구역으로 나눴음.
 - 은률군 산림 면적은 2만 정보임. 지휘부 일꾼은 군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에 조림 구역을 분담하고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였음. 지휘부 일꾼은 나무를 심은 뒤 단위 책임일꾼 이 나무가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물과 비료주기, 풀과 잡관목 베어주기를 비롯한 나무 비배관리를 바로 하도록 지도하였음.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산림복구전투작전 - 운전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4.27.)

- 운전군 일꾼은 산의 해발고도와 토양의 특성, 바람 방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용하였음.
- 수유나무심기는 과학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음.
 - 산의 경사도에 따라 줄 사이 간격과 나무 사이의 간격을 기술적 요구대로 유지하였음. 나무심기에 나선 근로자들은 구덩이마다 부식토를 넣고 물을 주면서 심은 나무주위에 2~3 개씩 돌을 놓아 토양의 습기가 빠지지 않게 하였음. 이는 자연 지리적 특성에 맞게 혼성림을 조성한 것으로 룡봉지구 산에도 세잎소나무와 넓은잎나무를 심어 혼성림을 조성하였음.
- 운전군은 혼성림조성작전을 실시했음. 운전군 일꾼은 등고선 방향으로 세잎소나무와 넓은잎나무를 줄식으로 정보당 수천 그루씩 심고 기술 지도를 하였음.
- 현지에 나간 일꾼은 넓은잎나무를 세잎소나무보다 정보당 1,000여 그루씩 더 심고 기술 적 요구를 지키도록 지도하였음.
 - 일꾼들은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빗물에 흙이 씻기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음.

- 2014년 삼광지구 근로자들은 산에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하면서 산의 경사도에 따라 등고선 방향으로 15~30㎝ 높이의 흙과 돌을 쌓고 1m 너비의 풀 두둑을 만들었음. 두둑에는 나무를 심고 두둑과 두둑 사이에는 농작물을 심었음.
 - 장마철에 흙이 씻기는 현상이 감소하여 토지가 보호되었고 나무의 사름률이 높아졌음. 일 꾼들은 해당 방법을 보석, 대연, 가산지구를 비롯한 모든 지구에서 적용하였음.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 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5.4.29.)

- 자강도 산림복구전투지휘부 일꾼은 나무심기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고, 4~5월에 수만 정보의 산림을 조성할 목표를 세웠음.
 - 지휘부 일꾼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시군별 나무심기 시작 날짜를 정하고 산림 조성에 노력했음. 해발 고도가 낮은 지대와 중간 지대에서는 2015년 4월 말까지 나무심기를 끝내고 랑림, 화평, 중강, 자성군을 비롯한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에서는 2015년 5월 중순까지 끝낼 목표를 세웠음. 임업, 농업, 식료일용 공업부문의 일꾼은 산림 담당 구역의 채벌지, 땔나무림, 농장림, 종이 원료림 조성사업에서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고 있음.
- 나무심기에서는 강계시, 송원군, 초산군, 우시군, 성간군, 희천시가 성과를 내고 있음.
- 전국의 여러 시군의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은 나무심기에 동원된 당원과 근로자, 청년, 학생이 구덩이 파기, 거름주기, 물주기, 밟아주기 등 나무심기에 집중하였으며 사름률을 8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음.



2 농림축산업

♦ 농업(모내기 관련)

단 한해동안에 비약을 일으킨 비결 - 지난해 알곡 1,000톤을 증수한 선천군 석화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4.7.)

-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은 2014년에 간석지 논 백수십 정보가 가뭄에 피해를 입었으나 알 곡 1.000톤을 증수하였음.
 - 2014년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는 이른큰모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그들은 농장의 모든 논에 이른큰모를 받아들였고 씨뿌리기 준비를 예년보다 앞당겼음. 이른큰모를 키울 수 있도록 차단재를 깔고 모판을 7,000개 만들었으며 벼 모판 씨뿌리기를 끝내고 비닐박막과함께 나래를 덮었음. 또한 토지등급을 수십 개로 세분화하여 분조를 한 집안 식구가함께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음. 분조 안에서는 영농 기능수준과 노동 인원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작업조를 편성하였음.

황금벌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 - 평워군 일꾼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5.4.8.)

- 평원군 농업 일꾼은 70%이 상의 논 면적에 영양단지모를 도입할 목표를 세웠음.
 - 지력이 높은 포전의 흙인 건밭흙 또는 제바닥흙, 부식토, 진거름, 집짐승배설물, 물거름을 섞어 영양단지재료를 만들었음. 평당 요구되는 각종 재료의 양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계획을 진행했음.
-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기름진 밭에 원토장을 만들고 지력이 낮은 포전에 흙을 실어 나르도록 수송 조직 잤음.
 - 그 밖의 포전에는 개바닥흙을 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랙터로 모판자리의 주변을 갈고 모판자리를 염기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겨 소형양수기를 이용하여 물을 확보했음.
- 생육기일이 긴 품종을 짧은 것으로 바꿔 이에 맞추어 씨뿌리기와 모내는 시기를 다시 정해 물을 절약하며 염기피해를 줄였음.

벼모종류별씨뿌리기 70%계선 돌파(로동신문 2015.4.20.)

- 각지 일꾼과 농업근로자는 과학농법을 받아들였으며 볏모 기르기에서 성과가 있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15년 4월 영양단지모, 영양알모, 영양랭상모 등 볏모 종류별 씨뿌리기를 70%이상 진행하였음.

- 각 지역에서는 2015년 가뭄을 대비하며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룡천군은 기상 기후 조건이 달라져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씨뿌리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곽산, 박천군은 생육기간이 길며 낮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이 센 품종들은 빨리 뿌리고 생육기간이 짧고 낮은 온도 견딜성이 약한 품종은 늦게 씨를 뿌리는 원칙을 정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 함경북도 일꾼과 농업근로자는 씨 뿌리기 계획을 90% 이상 수행하였음. 회령시, 명천군 은 모판 재료를 준비하고 종자처리, 싹틔우기를 비롯한 공정별 작업을 진행하며 씨뿌리기를 위료했음.
 - 평안남도는 볏모종류별 씨 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문덕군은 씨 뿌리기 방법을 혁신하여 씨 뿌림량을 보장하며 볏모종류별 씨 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 숙천군은 물 보장 대책을 세우고 씨뿌리기 질을 보장하였음. 평원군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도록 하며 모내기 시기를 고려하여 씨 뿌림량을 정확히 정했음.
 -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 밭상태모를 많이 기르는 조건에 맞게 병충해막 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볏모기르기를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 연안, 배천군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는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며 박막관리, 온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은파군은 물주기를 통해 토양습도를 보장하며 벼 모판 관리를 하고 있음.
 - 남포시는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물 관리를 통해 볏모 기르기에 성과가 있었음.

♦ 농업

밀보리심기 한창 - 량강도에서 (로동신문 2015.4.17.)

- 량강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갑산군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씨뿌리기에 관한 과학 기술 문제를 알렸음.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꾼은 밀보리 씨뿌리기 영농지도를 하였음. 백암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밀보리 씨뿌리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밀보리 씨뿌리기 실적은 80%를 초과하였



음. 대홍단군에서는 기계화 수단을 동원하여 밀보리 씨뿌리기에서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를 지키도록 영농지도를 하고 있음. 군농기계 작업소와 농장의 기계화분조에서는 부속품 생산과 현장수리를 하여 밀보리 씨뿌리기 완료를 앞당기고 있음. 삼지연군에서는 봄같이와 써레치기를 통해 밀보리 씨뿌리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혜산시와 김정숙군에서는 씨뿌림에 필요한 종자 확보와 종자 처리에 주력하고 있음. 풍서군에서는 일기 조건을 잘 타산하면서 적기에 끝낼 계획 하에 밀보리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 임업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수행 -121호림업련합기업소의 10여개 작업소에서 (로동신문 2015.4.6.)

- 121호림업련합기업소의 임산사업소의 10여 개 작업소에서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수 행하였음.
- 련합기업소 참모부에서는 통나무 생산에 겨울철에 생산을 집중하였고 산판마다 나무베기 와 모으기, 사이나르기 등을 실시했음.
- 성파림산사업소, 압록강류벌사업소, 삼수림산사업소, 룡하림산사업소의 여러 작업소에서 도 산판지형을 이용한 통쏘이 등 여러 수송 방법을 받아들여 사이나르기 실적을 높였음.

현실조건에 맞는 혼성림조성방법을 받아들여 - 태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4.6.)

- 태천군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전체 산 면적의 80%에 혼성림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천군 일꾼은 수종을 정하고 혼성림을 조성하였음. 대표적으로 학당리와 룡상리를 비롯한 중요 도로 주변의 산에 잣나무와 아카시아나무, 창성이깔나무와 평양단풍나무를 심었음. 대천군에서는 산 정점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잣나무와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나무를 심었음. 태천군 일꾼들은 혼성림조성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송태리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음. 산 정점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잣나무 한 줄, 넓은잎나무는 두 줄, 산 중턱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창성이깔나무와 단풍나무를 각각 한 줄씩 등고선 방향으로 심었음.

60여개 림산작업소들에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로동신문 2015.4.24.)

○ 룡림림산사업소의 광성, 룡운, 후지, 구룡, 신흥작업소 일꾼과 노동자는 기계톱의 이용률을 높이고 사이나르기에 집중하여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량을 늘렸음.

- 강계, 양계, 동신, 위원갱목생산사업소와 화평림산사업소의 작업소에서도 서리치기를 앞세우고 나무베기공, 밀대공, 아지따기공의 역할을 높여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수립하였음.
- 유평림산사업소 작업소는 임지조건에 맞게 나무 나르기와 통쏘이 등을 적용하여 연간 산 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냈음.

♦ 축산업

페사률을 낮춘 비결 - 원산시수의방역소에서 (로동신문 2015.4.3.)

- 원산시 수의방역소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수의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짐승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하고 있음.
 - 원산시의 축산기지와 집짐승을 기르는 가정세대는 수의방역지식을 배우고 집짐승 사양 관리를 하였음.
 - 약제조실을 갖추고 지방에 흔히 있는 약초를 이용하여 집짐승 치료에 필요한 예방약, 수 의치료약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수의방역사업에 이용하였음.
- 2015년 1/4분기 집짐승 폐사율은 동기 대비 2%로 낮아지고 고기와 알 생산량이 늘어 났음.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 평안북도의 현대화된 축산기지들에서 (로동신문 2015.4.5.)

- 평안북도의 축산기지에서는 1/4분기 축산물생산계획을 수행했음.
- 평안북도 도목장관리국의 일꾼은 예하 단위에서 축산물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축산기지에 필요한 먹이보장과 원료기지의 비료보장계획을 세워 집행을 위해 경제조직사업을 하고 있음.
- 신의주 닭공장은 새로 육종하여 도입한 알용 정주닭 사양관리를 하였고, 닭알 생산을 정 상화하고 있음.
- 신의주 닭공장, 구성 닭공장은 토착미생물로 만든 발효먹이를 하루 배합량의 10%까지 섞어 알곡먹이를 절약하였음.
 - 특히 신의주 닭공장은 방역대책을 세우고 가금예방접종을 진행하였음. 이산화염소수 생산 공정을 만들어 시설물의 소독을 하였음.



- 평북 돼지공장, 군민룡천 돼지공장의 축산기지 일꾼은 종축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음.
 - 이 공장은 은정복합균을 배양할 수 있는 균주생산기지를 세우고, 강냉이 짚과 강냉이 송 치를 먹이로 이용하여 알곡먹이 소비량을 낮추었음.
- 군민룡천 돼지공장에서는 토착미생물에 의한 난방보장방법을 받아들였음.
 - 5개소에 물 원천을 확보하고 새로 건설한 50㎡능력의 물 저장 시설에서 자연흐름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축산물증산의 열쇠 - 사리원돼지공장에서 (로동신문 2015.4.8.)

- 사리원 돼지공장에서는 방역과 증산을 위해 수의방역체계를 세우고 있음.
 - 공장에서는 무리별 예방접종과 질병 예방작업을 진행했으며 각종 예방약들도 보관하고 있음. 예방접종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은 주사약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양을 주입하도록 노 력했음.
 - 호동 및 먹이 가공실 출입 규정을 마련하고 돼지의 사양관리에 이용되는 공구의 소독 사업, 주변위생환경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였음.
- 공장은 돼지의 질병예방에 효과적인 여러 한약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매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2~3명의 인력이 주변 산에서 할미꽃뿌리를 비롯한 여러 약 초를 채취하다고 알려졌음.

♦ 기타 작물

먹이풀씨뿌리기를 왜 한달 앞당겼는가(로동신문 2015.4.5.)

- 국가자원개발성의 봄철 먹이풀 씨 뿌리기는 2014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빨리하였음.
 - 2014년에 풀판 조성 씨 뿌리기가 늦었고 생육이 미숙하였음. 이에 일꾼은 2015년 먹이풀 씨뿌리기를 초봄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음. 해발고도가 낮으면서 땅속 물기가 많은 키큰나무 와 잡관목주변, 남쪽, 서쪽 경사면부터 씨뿌리기를 하였음.
 - 가뭄에 약한 포전부터 점차 물기가 많은 포전에로 씨뿌리기를 하도록 하였음
- 국가자원개발성은 한 포전에 콩과먹이풀과 벼과먹이풀을 함께 재배하도록 하였으며, 품 종별에 따라 뿌려야 할 종자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었음.

- 토심에 맞게 씨뿌리기형식도 달리하였음.
 - 토심이 깊은 풀판에는 흙보산 비료와 화학 비료, 소석회를 섞어 뿌리고 골을 파서 먹이풀 씨앗을 뿌려 묻고 밟아주었음. 토심이 얕고 경사가 급한 풀판구역에는 칡을 비롯한 먹이풀 과 작물을 심었음.
 - 비탈밭에 풀판을 조성할 때에는 윗부분에서 씨 뿌림량을 늘리고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양을 줄였음.

일거량득하는 온실 - 은산군 읍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4.8.)

- 은산군 읍농장의 남새포전과 돼지우리가 있는 온실은 2014년 하반기에 약 10톤의 수박, 남새류와 여러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였음.
 - 온실을 건설하며 수박모를 심어 4톤의 수박을 생산했음. 온실이 건설되어 겨울철에 남새동에 나래를 씌워주지 않아도 3℃이상의 온도가 유지되었고 돼지우리는 10℃이상으로 유지되었음. 300여 ㎡의 돼지우리에서 2014년 10월 중순부터 2015년 4월까지 수백 톤의 거름을 생산했음.

기질 대 버섯수확률을 최대로 - 홍원버섯공장에서 (로동신문 2015.4.8.)

- 지금까지는 1톤 버섯기질을 생산하는데 150~200kg의 쌀겨를 이용했으나 고치 생산 사업소에서 나오는 누에 배설물을 이용하여 버섯 공장에서는 쌀겨를 쓰지 않고 버섯을 생산할 수 있었음. 원가가 절감되었고 버섯수확률도 높아졌음.
 - 수확률이 증가하였음. 쌀겨를 쓸 때에는 기질 대 버섯수확률이 60~70%였으나, 누에배설물을 이용한 뒤에는 최고 100%로 나타났음. 공장에서는 누에배설물과 함께 닭 배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 농업기반 및 농자재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올해안에 전구간 제방성토공사 끝낼 목표(로동신문 2015.4.23.)

○ 홍건도 간석지 건설자는 3달 동안 22만 7,400㎡의 막돌과 토량을 처리하여 1,428m의 3호제방 성토공사를 진행하였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 간석지 건설자는 안산지구의 대삼곳도에서 2015년 1월 6일 10만산대발파를 2015년 1월 23일에는 20만산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3호 제방 성토공사를 진행하였음.
- 3달 동안 22만 7,400㎡의 막돌과 토량을 처리하며 1,428m의 제방을 구축하였음.
- 련합기업소 일꾼은 2015년 안에 3호제방 성토공사를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 직사업을 실시하였음.
- 장송 간석지 건설사업소 건설자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도입하여 한 달이 소요되는 도갱 굴진을 5일 만에 완료하고 1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였음.
 - 20만산대발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맡은 로하 간석지 건설사업소 건설자는 이러한 발파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음.
- 다사기계화사업소 지배인 김성옥, 운수직장장 리창민, 청강기계화사업소 지배인 배정선, 운수직장장 한광렬동무를 비롯한 일꾼과 건설자는 많은 막돌과 토량을 실어 나르며 3호 제방성토공사를 진행하였음.
- 석화, 곽산, 로하, 다사, 장송, 보산 간석지 건설사업소와 다사, 청강 기계화 사업소의 일 꾼과 간석지 건설자는 매일 20~30m의 제방을 쌓고 있음.
- 로하 간석지 건설사업소의 일꾼은 석화지구에서 2015년 4월 10일 10만산에 이어 20만 산대발파를 진행하였음.

1500정보의 새땅을 찾아 조국의 대지를 넓혔다(로동신문 2015.4.28.)

- 황해남도 간석지 건설련합기업소의 일꾼과 건설자는 2015년 4월 26일 룡매도 간석지 6 구역의 방조제 마감막이 공사를 끝냈음.
 - 일꾼과 건설자는 170만 m'의 토량을 처리하고 17만 m'의 장석 공사를 진행하여 8,800여 m의 룡매도 간석지 6구역 방조제 마감막이 공사를 끝냈음. 그 결과 1,500정보의 땅을 간척했음.
- 건설장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 공사기간에 370여 개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70여 종, 1,500여 개의 각종 설비부속품을 이용하였음.
 - 수리 기지를 설치하고 소, 중수리 및 대수리를 진행하고, 많은 부속품들을 재생 이용하여 건설 속도를 높였음. 노동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십 건의 기 술 혁신안이 제시되고 이를 적용하였음.

○ 2015년 4월 26일 룡매도 간석지 6구역 방조제 마감막이 공사를 끝내고 1,500정보의 간척지를 확보하였음.

♦ 거름, 비료

해주제련소 류산생산공정현대화공사 추진(로동신문 2015.4.23.)

- 황해남도 해주제련소의 인 비료 생산을 위해 유산의 생산 공정 현대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관련 단위의 일꾼 현장협의회를 조직하고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공사계획에 따른 작업 분업을 실시하여 필요한 설비, 자재의 보장대책을 계획했음.
- 2015년 2월 공사 참가자는 울타리 공사와 화단 정리, 잔디밭 정리와 도로 보수 등 지대 정리 작업을 하였음.